

끝없는 머니무브 ‘진격의 코스피’... “3500선 시간 문제”

코스피 3000 시대

(中) 증권가 전망치 줄상향

증가 기준 첫 3000선 돌파
증권사 3200~3500 전망
유동성 풍부... 전망 밝아
“단기 과열, 불확실성 우려”

꿈에 그리던 ‘코스피 3000 시대’의 막이 올랐다. 시장에선 올해 3500선까지 상승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를 필두로 한 유동성 유입이 계속되며 지금과 같은 오름세가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가. 예상보다 빠른 지수 상승속도에 국내 증권사의 전망치 줄상향이 이어지고 있다.

분위기는 순조롭다. 7일 코스피는 증가 기준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3.47포인트(2.14%) 오른 3031.68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중 3000선을 터치하며 13년 5개월 만에 앞자리를 바꾸는 ‘새 역사’를 쓴 데 이어 또 한 번의 신기록이다.

하지만 지나친 과속은 사고를 부르는 법.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단기적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올 최고 3500까지 간다...장밋빛 전망
올해도 재미(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며 주요 증권사는 기존 전망치를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증권사 중 올해 코스피 전망을 가



코스피가 사상 첫 증가 3000선을 돌파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에서 (왼쪽부터)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시

장 높게 본 대신증권의 최대 예상치가 3080포인트였다. 벌써 그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빠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선 앞자리가 ‘3’으로 바뀐 역사적 순간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단순한 유동성만으로 이뤄진 수치는 아니란 것.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급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풍부한 유동성 여건과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그리고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실적 전망을 고려한다면 코스피 3000 안착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전망치를 연초부터 뛰어 넘어 목표가를 올리는 증권사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SK증권은 최대 3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나온 전망치 중 가장 높다. 이효석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 형성된 상장사 순이익 전망치인 133조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자기자본이익률(ROE) 8.4%를 적용하면 코스피 지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37배 수준인 3500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코스피 상단을 3300선으로 전망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이 실물경기 대비 양호했던 이유엔 대형주 중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단 사실이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에서

한 발 빠져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실물경기 회복과 상관없이 올해 전망은 밝다”고 했다.

KB증권도 3300선을 예상했다. 지난해 말 2950선을 예상했으나 최근 흐름과 상장사 순이익을 고려해 상향 조정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앞당겨지고 달러 약세 국면이 지속되며 코스피 이익이 약 50% 급증하는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으로 3200을 제시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언택트, 전기차 등 새로운 산업군 성장과 함께 개인 매수세가 증시의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주춤해지더라도 개인이 지수 하단을 방어한다. 예금 이자는 낮아져 정부가 부동산 자금 유입을 막고 있어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나친 과속...단기 조정 우려”

예상보다빨리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며 과열에 따른 불안감도 감지된다. 실물경제와 증시와의 간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 단기 급등에 따른 거품(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지수에 반영됐다고 지적한다. 우호적인 증시상황에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지나치게 올랐다는 해석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에 오른 만큼 불안감은 분명하

다. 3000 안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고 펀더멘털(기초체력)과의 괴리가 상당히 벌어졌다”며 “올해 좋아지는 펀더멘털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지만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당부했다.

기업들의 실적과 3월 공매도 재개 등도 주목할 만한 변수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 미칠 수 있고 공매도 재개시 사전에 물량을 비우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래도 기밀 곳은 단연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다. 초저금리 지속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향후 투자처는 결국 주식시장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산 가격에 버블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전례 없는 막대한 유동성이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자산 가격 상승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1분기 정도엔 큰 조정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희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경기 회복세가 길게 보면 증시호조를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상승에 기대지 말고 선택적 접근을 해야 한다. 친환경 수혜주와 부양책 기대에 따른 경기민감주,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철강, 화학 등 소재 업종들의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1면 ‘전기차 보조금’서 계속

6000만원 초과면 ‘절반’ 소비자 체감 가격 10% ↑

최근 몇 년간 45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12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가격이 6000만원을 넘게 되면 보조금은 절반(625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구매 가격은 10% 가량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단순 차량 판매가로 정될지, 세금을 제외한 상품 가격으로 책정될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차량 판매가로 정할지 차량의 실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할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며 “19일 발표예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성차 브랜드별로 다양한 판매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가를 낮춘 뒤 차량 구매 후 반자율주행 등의 첨단 기능을 구매해 탑재하는 형태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동차 안전 부문도 달라진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오는 2월 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양성운 기자 ysw@

비트코인 광풍 컴백... 국내 거래 첫 4000만원 돌파

국내 개인투자자 매수세 상승 기인
3년 만에 ‘김치 프리미엄’ 되살아나
수요 몰리면서 4%까지 치솟기도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투자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017년 투자열풍 속 심화했던 ‘김치프리미엄(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비싼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1시8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보다 8.85% 오른 417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5분을 기준으로 4000만원을 돌파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3만7312달러(약 4056만원)에서 거래 중이다. 즉, 같은 비트코인을 구입하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구입할 경우 2.78% 가량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거래가가 해외 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같은날 기준 이더리움(ETH)은 135만원(2.84%), 라이트코인(LTC) 19만원(2.76%) 등 주요 가상화폐 종목 가격도 해외 거래소 대비 2~3%가량 높게 책정돼 있다.

김치프리미엄(김프)이 다시 등장한



비트코인 시세가 4000만원을 넘기며 최고가를 경신한 7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센터에 암호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거래소에서 지난달 27일 최초로 3000만원을 넘어서 지 11일만에 1000만원이 뛰어 4000만원 돌파했다. /뉴스시

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20~30% 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배경으로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송금한도와 가상화폐 전송 시 며칠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마다 김치프리미엄이 어김없이 등장하게 된다. 국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지난해의 경우에는 실제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역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잇따라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커졌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가상화폐 매수의 주체가 장외거래를 활용하는 기관투자자 및 대기업의 진입이 활발한 반면,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한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가 가상화폐 종목에 투자하기에는 제약조건이 많아 진입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연말부터 2만달러 돌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투자 수요가 몰리

면서 김치프리미엄이 최대 4%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구축 등을 마련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는 실명계좌를 기반으로한 국내 거래소 이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경우 해외거래소와는 어느 정도 시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석 기자 ysl@